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2030 청년 소상공인 제품 10% 할인 판로 및 매출 확대 지원

2023. 7. 5.

- **소담스퀘어 당산 입점한 청년기업 11곳 참여**
- **10월 31일까지 170여 개 제품 10% 할인**
- **청년기업에 대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2023. 07. 05 서울 - 쿠팡이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당산'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 기획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 공간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실습교육부터 영상 콘텐츠,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확산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이다.

쿠팡은 소담스퀘어 당산과 협업해 청년 기업 11곳의 상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청년 기업들은 자금력과 경험 부족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쿠팡은 이들 기업들의 상품을 앱 메인 화면에 노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들 청년 기업들의 상품을 모아 오는 10월 말까지 기획전을 연다. 롤케이크, 휴대폰 케이스, 마스크팩, 칫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 170여 개를 선보인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청년 기업 상품은 10% 할인된다. 쿠팡이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품만 모아 상생 기획전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장품 제조 기업 '닥터클레오'의 김명환(29) 대표는 "치열한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기 어려웠다"며 "많은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쿠팡과 함께 인지도와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건 식품 기업 '더브레드블루'의 문동진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베이커리 상품을 쿠팡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건 식품을 대중화해보자는 창업 초창기 꿈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했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을 계기로 판로 및 매출 확대가 필요한 청년 소상공인 기획전을 늘려갈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만든 각종 제품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품질과 가성비를 갖춘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들의 제품을 적극 발굴해 고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